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화목이란 음식을 맛있게 만들듯이 각자 대하는 사람에 따라 좋게 만드는 것이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화목의 근본 존재자이시다. 화목해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 돼야 하나님의 뜻도 자기 뜻도 이룬다.
3. 화목을 생각에서 잊으면 운명이 딴 길로 가게 된다.
4. 화목에는 돈도 먹는 것도 필요가 없다. 자기가 행하면 된다.
5. 화목은 보석 같아서 원석을 가공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가공해 놓으면 10배, 100배 값이 비싸고 빛이 난다. 행함이 가공이다.
6. 화목하지 않으면 토목공사를 안 하고, 집터를 안 닦고 건물을 짓는 격이다.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느냐.
7. 월명동 앞산, 뒷산, 옆산도 토목공사를 안 한 곳에는 돌을 쌓지 않았다. 화목은 토목공사의 기초와 같다. 절대적이다.
8. 화목할수록 천국이 더 좋게 만들어지고,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9. 불만불평은 모두에게 천국도 이상세계도 깨트리는 무서운 암과 같은 적이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절대 화목, 모든 자와 화목이다.
11. 어려워도 성령과 주와 함께하여 화목 실천이다.
12. 성령님은 화목하도록 늘 감동으로 행하신다.
13. 화목하게 하는 자는 신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14. 화목 없이는 소금 없는 음식과 같다.
15. 화목한 자를 배척하니, 가정도 민족도 세계도 불화하게 됐던 것이다.
16. 섭리사는 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지켜 행하여라.